

국 문 초 록

80년대 말은 멕시코 여성 감독이 붐 (Boom)을 이룬 시기로 마리세 시스타츠 (Maryse Sistach), 부시 코르테스 (Busi Cortés), 기타 쉬프터 (Guita Shyfter), 마리아 노바로 (María Novaro), 다나 로트버그 (Dana Rotberg)가 활발한 영화 제작 활동을 펼친다. 이 시기에 등장한 여성 감독들은 주류 영화들과는 차별화된 카메라 기법과 서사구조로 남성중심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비가시적이던 여성을 가시화하며 여성의 주체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마리아 노바로의 <단손 *Danzón*>(1991)은 주류영화에서 자극적인 시각적 효과로 관객들의 '볼거리 (to-be-looked-at-ness)'로 작용하며 성적 대상으로 전시되던 여성을 가부장적 문화의 틀에서 탈피시키고, 응시와 쾌락의 주체로서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감독은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탈피하기 위해서 카메라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전향시켜 스크린에 전시되는 여성 대상을 남성으로 대체한다.

부시 코르테스는 <로멜리아의 비밀 *El secreto de Romelia*>(1988)에서 남성중심 역사의 희생양으로서의 여성을 스크린에 재현하고, 기타 쉬프터는 <신부처럼 *Novia que te vea*>(1994)에서 가부장 성격이 강한 유대인 사회에 대항하는 여성인물들의 비판적 의식의 선취를 보여주며 서사적 층위에서의 탈남성중심주의를 시도한다. 또한 마리세 시스타츠는 <아나의 걸음 *Los pasos de Ana*>(1988)을 통해 서사적인 측면에서 과거 남성에게 의지하는 여성이나 결혼을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는 수동적인 여성들의 이미지로부터 이탈하여, 남성들의 쾌락 대상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쾌락의 주체로서의 여



성, 독립적이며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주체적인 여성을 구현한다.

마리아 노바로의 <에덴 정원 *El jardín del Edén*>(1994)과 기타 쉬프터의 <신부처럼>은 민족적 정체성과 여성으로서의 자아문제를 동시에 다루며 삼중으로 소외되는 여성의 모습을 조명한다. 다나 로트버그는 <불의 천사 *Angel de fuego*>(1992)에서 주변화된 모든 소수자들에 대한 포용을 통해 확장된 의미의 여성주의를 제기한다. 이렇게 여성 감독들은 경제적, 인종적, 성적 소수자들을 모두 포용하며 소수자들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의 창조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여성들만의 대안적 공동체를 통한 소수성의 정치적 함의까지도 내포한다.

80년대 말 이후의 여성감독들은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허물고 각각의 소수주체들의 고유성에 대한 인정과 공존을 추구한다. 그들의 영화에는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서고자 하는 여성들의 간절함과 인정에 대한 욕망이 담겨 있다. 그들은 이분법적인 세계, 남성중심의 지배담론에서 탈피하여 다양성이 인정되는 세계를 지향한다.

주요어 : 멕시코 영화, 여성감독, 여성주의, 주체성, 쾌락, 타자

학 번 : 2008-20037

